새로 나온 책

자본주의와 나치즘의 러브스토리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자크 파월 지음/박영록 옮김/오월의봄

"우리가 히틀러를 고용했다"

독일의 자본가들은 파시즘에 극히 호의적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데 협력했고 그가 정복 전쟁을 벌이며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때 도움을 줬다.

책은 나치즘과 파시즘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해 자본주의와 어떻게 결탁했는지를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독일에서 나치즘과 자본주의의 역사는 친밀한 관계의 연대기이자 일종의 러브스토리"라고 말한다.

다임러-벤츠, 도이체 방크, 코카콜라, 아이비엠, 포드, 제너럴모터스, 코닥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과 은행은 히틀러를 적극 지원해 전쟁으로 큰 이득을 봤다. 나치즘은 1930~1940년대 독일에서 자본주의가 수익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1929년 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독일도 타격을 입었다. 자본가들의 눈에 히틀러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타개할 독재자로 비춰졌다. 그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노동조합과 같은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공산주의자를 탄압했다. 이어 사회주의자, 노동조합원, 유대인을 차례로 제거했다. 최종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뒤에서 히틀러를 떠받친 자본가와 대기업들이었다. 자본주의와 파시즘의 기막힌 사랑이야기. **432쪽. 2만3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위험한 사전

전해자 지음/초록비책공방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자면' 등 사람들은 저마다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들이 있다. 책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험한 말버릇'을 지적한다. '당연히', '반드시', '절대로'와 같은 당위의 말들이다. 저자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위에 사로잡힌 이러한 부사들을 '슈디즘(shouldism)'에 갇힌 위험한 말버릇으로 규정한다. **348쪽. 1만6000원.**

갈등 도시

김시덕 지음/열린책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이해 충돌과 부자 동네와 못사는 동네를 편 가르는 지역 간 반목이 두드러지는 갈등 도시다. 저자는 현대 서울의 역사를 배제와 추방의 역사로 바라본다. 서울은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울 시민'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간주되는 수많은 시설과 사람들을 경기도로 밀어냈다. 혐오시설과 가난한 사람들을 외곽으로 밀어내 계급적으로 균질해진 서울 '특별'시가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512쪽. 2만원.**

도서관의 삶, 책들의 운명

수전 올리언 지음/박우정 옮김/글항아리

1986년 4월,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에 화마가 덮쳤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틈을 타 불티는 전력 질주해 40만권의 책을 한줌의 재로 만들었다. 프랑스의 판화가 귀스타브 도레의 삽화가 실린 1860년도판 '돈키호테',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1500년대에 저술한 책이 사라졌다. 미국 역사상 공공도서관이 입은 최대 손실이었지만 무관심 속에 묻혔다. 비통함과 연민, 위트와 통찰력이 뒤범벅된 서고 여행기. **488쪽. 1만9000원.**

롯데호텔월드 "스누피와 달 여행 떠나요"

달 착륙 50주년 기념 패키지 선봬

롯데호텔월드는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잠실을 찾아온 스누피와 함께 특별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한 '스누피 인 루나(Snoopy in Luna)' 패키지는 ▲롯데호텔월드 디럭스룸 1박 ▲롯데뮤지엄의 '투 더 문 위드 스누피' 전시 티켓 2매 ▲한정판 스누피 인형 1개 ▲롯데호텔월드 1층에 위치한 '라운지 앤 브라세리'에서 즐길 수 있는 핫초코 세트로 구성됐다.

스누피 달 착륙 50주년 기념 특별전인 '투 더 문 위드 스누피(To the Moon with Snoopy)'는 롯데월드타워 8층에 위치한 롯데뮤지엄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스누피와 달 착륙의 역사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와 피너츠의 캐릭터로 작업한 케니 샤프(Kenny Scharf), 앙드레 사라이바(Andre Saraiva)의 회화를 최초로 공개한다. 또한 50년 전 달 착륙을 이끌어낸 피너츠에게 영감을 받은 국내외 현대 미술 작가들의 신작 10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오는 27일까지 석촌호수에서 진행되는 공공미술 '루나 프로젝트'도 또 하나의 즐길거리다. '루나 프로젝트'는 스누피와 아티스트 그룹 스티키몬스터랩이 최대 16m의 초대형 벌룬 등으로 만든 7개의 대형 우주 캐릭터를 통해 50년 전 달로 떠난 아폴로 우주선과 우주행성들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김민서 기자

신라와 첨단기술 만나 천년의 역사를 한 눈에

캄보디아 왕립무용단의 공연 모습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신라의 찬란한 역사가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하 경주 엑스포)에서 부활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경주 엑스포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지난 11일 개막해 오는 11월 24일까지 45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내달 24일까지 진행
석굴암 첨단기술 입혀
입체영상으로 재탄생
해외 무용·클래식 등
다채로운 공연 마련

이번 경주 엑스포는 그동안의 '단기 집중형 문화박람회'에서 벗어나 '연중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상시 문화박람회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엑스포 행사를 위해 만든 핵심 콘텐츠를 엑스포 이후에도 개방해 연중 운영하고 계절별로 특화된 축제 주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콘텐츠 '빅(Big) 4'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 체험, 공연, 영상 등 4개 분야의 핵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콘텐츠는 역사,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와 엑스포는 천년 신라 역사 문화에 최첨단 기술을 역점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문화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먼저, 황룡사 9층탑을 음각한 형상의 경주타워에서는 '신라천년, 미래천년(이머시브 스크린)'이 운영된다. 경주타워 전망대(선덕홀)의 전면 유리를 활용한 신라체험 가상현실 콘텐츠로, 관람객이 8세기 융성한 서라벌로 시간여행을 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찬란한 빛의 신라(타임리스 미디어 아트)'도 열린다. 전시 미술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결합시켜 신기하고 환상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신개념 미술 전시다. 금관과 석굴암, 성덕대왕신종 등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을 첨단 입체영상기술로 재해석한 영상미가 압권이다.

화랑숲을 정비해 조성한 숲길에서는 야간 숲속 모험 프로그램인 '신라를 담은 별'을 만나볼 수 있다. 낮에는 전국 최초의 맨발 전용 산책길인 '비움 명상길'이 열리고, 밤이 되면 홀로그램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연출하는 신화와 전설 세계로 탈바꿈한다.

세계 최초로 로봇 팔과 홀로그램이 연출하는 '인피니티 플라잉'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 엑스포공원 내 솔거미술관에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 전(展)'을 비롯해 공예 바자르와 경북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 기간 동안 열린다.

◆경주 엑스포 '꿀 팁'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해외 공연팀과 국내 전문 음악팀의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각 팀별로 공연 일정이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는 25~27일에는 '이집트 룩소르 지역의 전통댄스 공연팀'이 무대에 오른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이집트의 전통과 현대의 민속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공연팀은 샹들리에 댄스 등 이집트 전통 댄스와 고유의 환경으로부터 영감 받은 창작 안무를 선보인다.

앞서 12~13일에는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캄보디아 왕립 무용단'이 크메르 문명의 클래식 무용을 선보였다. 또 같은 날 '호찌민 시립 봉센민속공연단'도 베트남의 색채를 담은 연주회를 펼쳤다.

오는 19일과 26일에는 진행자의 해설과 영상이 함께하는 'N.M.C솔리스트 앙상블 클래식 스토리' 공연이 열린다. 오페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해설, 영화 속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내달 2~3일에는 영화음악을 주제로 펼치는 '이지영음악연구소의 영화음악 여행'이 열린다.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 속 음악을 피아니스트 이지영의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다.

또한, 엑스포를 알뜰하게 즐기는 방법도 눈 여겨 볼만 하다. 주최 측은 그동안 공원 입장 무료, 개별 콘텐츠 유료로 운영하던 행사를 올해부터 확 바꿨다. 기본 입장료(성인 기준 1만2000원)만 내면 웬만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태풍피해 성금 1만 원 이상을 낸 사실을 입증하면 기본 입장료가 공짜다.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는 내달 24일까지 당일에 한해 경주월드 등 지역 관광숙박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주최 측은 엑스포공원 정문에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고, 행사장에 관람차 2대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경주타워 1개 층 전체를 카페와 정원으로 꾸며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사진=문화엑스포

롯데홈쇼핑 유료멤버십, 1년새 14만명 돌파

'엘클럽' 론칭 1주년 기념 프로모션

롯데홈쇼핑의 유료멤버십 '엘클럽'이 론칭 1년만에 회원수 14만명을 돌파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업계 최초 유료 멤버십 서비스 '엘클럽(L.CLUB)' 오픈 1주년을 맞아 할인 행사, 골드바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엘클럽' 고객만을 대상으로 '비밀특가전'과 '선착순 특가'를 진행하고, 10% 추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비밀특가전'은 조르쥬 레쉬 등 단독 패션 브랜드를 비롯한 TV방송 상품, 해외 유명 브랜드의 뷰티, 생활 상품 등 총 100여 개의 인기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하는 행사이다. 또한,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샤넬 클러치, 애플 에어팟 2세대, 구찌 시계, 프라다 가방 등을 할인가에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 매회 1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3일 동안 총 6회 진행된다. 이외에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골드바(18.75g)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